

한국 대학생들은 무엇을 후회 하는가? : 후회와 지각된 기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궁재은 허태균*
고려대학교

Roese와 Summerville(2005)은 후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통제가능성을 제안하면서, 실제로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킬 여지가 큰 인생 영역에서 후회도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영역에서의 지각된 기회가 후회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서구문화에서 확인된 후회경험의 일반적 경향들을 비교문화적으로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차 변인에 따른 후회의 양상을 살피고, 각 영역별로 후회의 유형을 분석하여 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은지, 아니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은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서구문화에서 발견된 후회경험의 경향들은 한국문화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대학생들은 기회가 많았다고 지각되는 인생영역에서 더 많은 후회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인 대학생 집단과 한국인 대학생 집단 간에 후회를 많이 경험하는 인생영역이 유사하였다. 흥미롭게도, 관계적인 영역들에서 행동에 대한 후회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들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후회경험의 범문화적 보편성과 문화적 고유성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주요어 : 한국대학생, 후회, 기회, 인생영역, 비교문화, 행동, 비행동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며, 지나간 시간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한번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 어떠했을지 궁금하게 여기거나, ‘만약 그때 ... 했더라면 ... 하지 않았을까?’와 같은 상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거

슬러 올라가 실제 일어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라고 한다(Roese, 1994).

사후가정사고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Roese & Hur, 1997). 하향적인 사후가정사고가 유발하는 대표적인 정서는 안도감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이웃에게 “그만한 게 어디냐”며 위로할 때 그 기저에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는

* 교신저자 : 허태균,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실제 일어난 결과를 보다 부정적일 수도 있었던 결과와 비교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달리 상향적인 사후가정사고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발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후회이다(Roese, 1994). 많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텐데...”라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 이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보다 나은 가상적 결과와 비교하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에 해당한다. 기존 연구들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보다는 더 자동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Roese & Olson, 1997), 이는 특히 부정적인 결과나 정서가 유발된 이후에 그렇다고 밝혀졌다(Markman, Gavanski, Sherman, & McMullen, 1993).

지금까지 설명된 바와 같이 후회의 인지적인 기제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이다. 후회는 단지 기분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감정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서와 달리 인지적인 요소가 강하다(허태균, 2002; Roese, 1994). 즉, 후회의 경험에는 불쾌한 정서가 경험된 후에 그 불쾌함을 유발하는 과거의 선행사건을 추론하는,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때 원인으로 지목된 선행사건은 인지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효화되거나 다른 대안적 선행사건으로 대체되는데 이를 선행사건이 전환(mutation)된다고 표현한다(Kahneman & Miller, 1986). 사후가정사고에서 어떤 선행사건이 전환되는지가 곧 후회의 내용, 즉, ‘무엇’을 후회하는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왜 후회하는가? 즉, 과거의 선행사건 중 무엇이 보다 잘 전환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대부분 서구의 문화에서 연구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서구 연구에서 발견되어왔던 일반적인 연구결과가 한국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의 필요성은 한국인들에게 한과 후회가 명확하게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시사한 최근의 연구(허태균, 남궁재은, 張薇, 2008)에서 비롯된다. 이는 개념적으로 기회의 박탈에서 비롯되는 한과 기회의 지각에 근원하는 후회의 차이가 한국인에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구보다 한국문화에서 기회와 후회

의 관계성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문화에서는 한 번도 학문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인생영역별 후회경험의 상대적 빈도를 조사하여 기회와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활성화하거나 혹은 후회를 유발하는 데 있어 지각되는 통제가능성(기회)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인생영역일수록 그 인생영역에서의 후회의 경험이 강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본 연구의 한국인 대학생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 탐색적으로 그 문화적 차이의 설명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문화적 변인(개인주의-집단주의)을 측정해 포함시켜 그 역할을 확인하였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기존의 후회에 대한 문화 간 차이연구에서 중요 변인으로 제안되어 왔다(Hur, Roese, & Namkoong, in press). 마지막으로 기존 후회 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인 행동-비행동 후회의 빈도에 대해 탐색적인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사후가정사고 활성화와 지각되는 기회

후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규범(norm), 혹은 정상성(normality)이다. 규칙성이나 예상된 경로에서 벗어난, 즉 이례적인 과거의 사건들은 더 많은 사후가정사고를 유발하여 원인으로 지각되고 강한 후회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Kahneman & Miller, 1986; Kahneman & Tversky, 1982b). 예를 들어, 도로를 선택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한 Kahneman과 Tversky(1982b)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주인공이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을 택했을 때 더 강한 후회가 경험될 거라고 예측하였다. 즉, 평소에 항상 가던 길을 택한 주인공보다는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을 이례적으로 택한 주인공이 더 많이 후회할 것이라고 피험자들이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주인공의 행동은 개인내적인 일관성, 즉 규범 혹은 정상성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피험자들이 더 강한 후회를 예측하는 원인이 되었다.

후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주요 변인은 통제가능성이다. 통제가능성이 높은 선행사건이 그렇지 않은 선행사건보다 전환성이 높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Girotto, Legrenzi, & Rizzo, 1991; Markman, Gavanski, Sherman, & McMullen, 1993). 난

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다친 사람은 자신이 경솔하게 장난을 친 것에 대해 후회 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행동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만한 선행사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력만 없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짜증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력도 분명 그 사람이 넘어지는 데 일조한 요소이지만, 본인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은 대개 사후가정사고의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잘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달리 행동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상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해 후회를 한다.

Roese와 Summerville(2005)은 이러한 변화 가능성 혹은 통제 가능성을 기회의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였다. 즉, 인생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을 때 어떠한 삶의 영역은 개인의 힘으로 변화를 주거나 통제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나 혹은 적은데, 이것이 곧 그 영역에서 지각된 기회가 많거나 적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지각된 기회의 수준과 후회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Roese와 Summerville(2005)은 기회가 많은 영역일수록 개인이 과거에 달리 행동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들을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영역일수록 후회도 더 잘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대학생들은 애정관계, 친구관계, 교육, 여가, 자기, 직무, 가족, 건강, 영성과 같은 인생영역에서 순서대로 후회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생영역 중에 자기, 교육, 건강, 영성, 애정관계, 친구관계 순서로 자신이 통제가능한 기회가 더 많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인생영역의 순서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기회가 후회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확인했다는 점이다.

후회와 기회의 문화적 차이

후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써 빼 놓지 않고 언급해야 하는 것이 문화이다. 후회가 다른 정서들과는 달리 인지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사회문화적인 경험과 그것에 대한 반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변인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접근을 사용하여 후회를 연구한 논문은 아직 많지 않고, 최근 들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와 후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변인들은 범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그러한 변인들이 작용하는 원리에는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Hur, Roese, & Namkoong, in press).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사건(행동)이 정상적인 사건보다 더 전환가능(mutable)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후가정사고를 할 때 비정상적인 사건을 정상적인 대안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범문화적으로 일치하지만 어떤 사건이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가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Hur, Roese와 Namkoong(in press)은 한국 사람들이 개인내 규범(자신의 행동 간의 일치성 여부)을 위배했을 때보다 개인간 규범(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 간의 일치성 여부)을 위배했을 때 더 후회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는 동서양 문화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서의 차이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후회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로 특정 영역에서 지각되는 기회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범문화적으로 일치할 수 있으나, 어떤 영역에서 기회가 많이 지각되고 후회가 강하게 유발되는지는 문화 특수적일 수 있다.

행동과 비행동에 대한 후회

후회 연구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후회의 구조를 다루는 것으로, 후회의 구조는 후회의 내용 혹은 대상이 행동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것인지로 구분된다(허태균, 2002; Roese, 1994). 사람들은 실질적인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한다. 물건을 구매해 놓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회를 하는 것은 전자, 즉 행동에 대한 후회에 해당 하는 반면, 고민하며 기다리다가 꼭 사야 될 물건을 살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것은 후자인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즉 비행동에 대한 후회이다.

초기 연구들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주로 증명하였다. 이들은 대개 시나리오를 사용한 연구들로써 시나리오 내의 두 인물이 똑같은 수준의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험

자들은 행동을 한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후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행동이 (비행동이 비해서) 정상성에서 더 이탈한 선행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Kahneman & Tversky, 1982a; Landman, 1987). 많은 경우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곧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상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와 일관되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규범에 일치하거나 정상적인 것이 되도록 시나리오를 조작한 경우에는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정상성에서 벗어나므로 보다 많이 후회할 것이라고 피험자들은 예측하였다(Zeelenberg, Van den Bos, Van Dijk, & Pieters, 2002).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보다 우세한 경우가 또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후회를 떠올리게 하거나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이다. Gilovich와 Medvec(1994)은 시나리오 기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실제 후회를 질문하였다. 인생 전체를 놓고 뒤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지 물어본 결과 행동한 것보다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한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그 반대로 응답한 피험자보다 더 많았다.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행동한 사람이 더 후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후회할 사람은 행동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피험자들은 응답하였다. 저자들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후회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메카니즘을 제안하였는데, 행동에 대한 후회를 감소시키는 변인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증가시키는 변인들,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인지적으로 더 가용하게 만드는 변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회경험에 있어서의 문화차이를 본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은 다양한 동서양의 문화권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지만(Gilovich, Wang, Regan, & Nishina, 2003), 인생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문화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Chen, Chiu, Roese, Tam, & Lau, 2006). 이는 후회의 경험을 관찰하는 데 있어 문화특수적 및 영역특수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대부분 서구에서 밝혀진 후회와 사후가정사고의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한국문화에서 확인하여 그 범문화적 보편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후회와 지각된 기회와의 관계가 한국 피험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한국 피험자들의 후회경험 및 기회에 대한 지각이 미국 피험자들의 그것과 얼마나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서구에서 진행된 관련연구인 Roese와 Summerville(2005)과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 연구가 직접비교가 가장 쉬운 미국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후회경험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밝힌 가장 최근의 연구이며, 그 방법이 문화적 특수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가장 후회하는 내용을 적도록 하고 그 후회가 속하는 삶의 영역을 스스로 표시하게 하였다. 연구 2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인생 영역 목록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기회가 많다고 지각하는 삶의 영역과 가장 기회가 적다고 지각하는 삶의 영역을 순위별로 표시하게 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도출된 인생영역들의 순위를 서로 비교하여 후회와 기회의 관계를 파악한 후 본 연구와 Roese와 Summerville(2005) 연구에서 도출된 인생영역들의 순위 간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문화변인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따라 후회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역특수적 접근법으로 후회의 유형을 분석하여 각 인생영역마다 행동에 대한 후회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1. 한국 대학생 집단의 후회

연구 1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며 그것이 어떠한 삶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1의 주요 목적은 그 결과를 연구 2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영역에서 후회도 더 많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절차 및 도

구는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측정변인 및 분석방법을 추가하여 연구를 확장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의 문화적인 성향을 함께 측정하여 후회 경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각 영역 내에서 후회의 유형(행동에 대한 후회 vs. 비행동에 대한 후회)을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피험자는 176명으로 서울 및 천안소재 대학교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남자가 91명, 여자가 80명, 성별 미명시자가 5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세(표준편차 2.82)였다.

측정도구

후회

후회의 내용은 자기보고식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즉, 피험자들은 자신의 가장 생생한 후회를 한 가지만 골라 묘사하도록 지시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지시문은 Roese와 Summerville(2005)에서 사용된 것으로 역번역 작업을 거쳐 제작되었다. 지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람들은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좀 다르게 행동했다면, 혹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면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당신 또한 이렇게 “만약 그때... 면... 을 텐데” 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떠오르거나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하나만 골라서 아래의 줄 쳐진 공간에 묘사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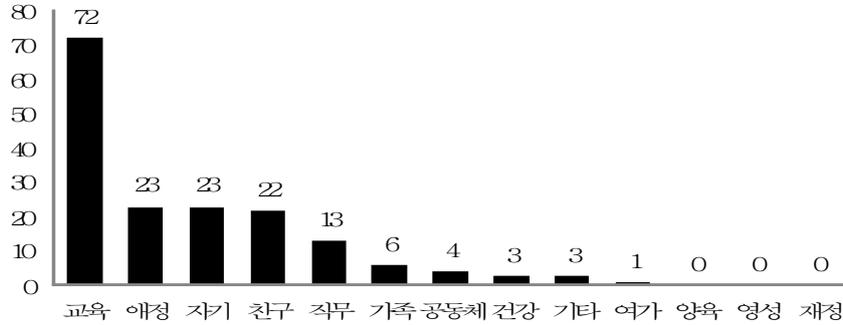
‘후회’라는 단어가 지니는 사회적 통념이 실제 후회를 기억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시문에서는 후회라는 단어를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사후가정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Roese & Summerville, 2005). 지시문 아래에는 후회의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줄쳐진 공간이 제공되었고, 이 후회가 얼마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인지를 개월 수로 표기하는 질문도 주어졌다.

인생영역

후회의 내용을 적은 후에, 설문지의 다음 장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묘사한 후회가 어떠한 삶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선택하도록 지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Roese와 Summerville(2005)이 기존의 후회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및 문헌연구를 하여 도출한 12개의 삶의 영역(가족, 건강, 공동체, 교육, 애정, 여가, 영성, 육아, 자기, 재정, 직무, 친구) 에 ‘기타’ 영역을 더하여 총 13개의 삶의 영역으로 구성된 목록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13번째 기타영역을 추가한 이유는 미국인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제작된 삶의 영역 목록이 한국인 피험자들이 후회를 경험하는 삶의 영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개인성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직적 및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를 역번역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직/수평 축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축을 교차하였을 때 생기는 네 개의 하위구성개념을 측정하며 총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은 개인과 집단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경쟁의 원리를 존중한다(예; ‘경쟁이 자연의 법칙이다’). 반면에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은 자율성과 고유성으로 구분되고 대등한 입장에서 개인 간의 차이만을 강조한다(예; ‘나만의 고유함을 갖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또,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에서는 위계가 인정되고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을 위한 자기희생이 중요한 요소이다(예; ‘나는 가족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그만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우선적인 가치로 둔다(예;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는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척도는 단순히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직적 혹은 수평적인 위계 성향을 포함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개인을 분류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영역에서의 후회를 관찰하고 이를 개인의 성향과 연결 짓는 데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후회영역

피험자들이 본인의 후회가 해당된다고 표기한 삶의 영역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N=7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하는 애정(N=23), 자기(N=23), 친구(N=22), 직무(N=1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1). 피험자 집단이 학부생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대한 후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해야 하는 일이 공부하는 점에서 자신의 공부를 직무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교육적 선택이 후에 직업상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피험자들의 개방형 응답을 살펴본 결과 이 중에는 교육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예; ‘다른 대학을 선택했어야 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등). 자신의 후회가 ‘기타’ 영역에 해당한다고 선택한 피험자는 세 명으로 이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국 대학생 집단과의 후회영역 비교

한국 대학생들의 후회와 미국 대학생들의 후회를 비교하고자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인 피험자 집단의 후회 영역 순위와 순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일치하였다($\rho=.774, p=.003$; 표 1). 즉,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은 비슷한 인생 영역에서 후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가장 강한 후회가 속하는 인생영역의 전반적인 순

표 1. 본 연구 1의 결과와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결과 간 후회영역 순위비교

본 연구 1			Roese & Summerville		
후회영역		%	후회영역		%
1	교육	40.9	1	애정	26.7
2	애정	13.1	2	친구	20.3
3	자기	13.1	3	교육	16.7
4	친구	12.5	4	여가	10.0
5	직무	7.4	5	자기	10.0
6	가족	3.4	6	직무	6.7
7	공동체	2.3	7	가족	3.3
8	건강	1.7	8	건강	3.3
9	여가	0.6	9	영성	3.3
10	재정	0	10	공동체	0
11	양육	0	11	재정	0
12	영성	0	12	양육	0

순위상관계수(ρ)=.774, $p=.003$

위는 두 피험자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유사하지만, 두 집단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후회의 비중이 Roese와 Summerville(2005)의 미국인 피험자 집단(16.7%)보다 본 연구의 한국인 집단(40.9%)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과, 여가영역에 대한 후회가 본 연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0.6%), 미국인 집단에서는 10%를 차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차이이다.

후회의 유형

후회의 유형(행동에 대한 후회인지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인지)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와 무관한 연구

자 두 명이 피험자들의 후회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행동에 대한 것과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것으로 분류 및 코딩하였다. 두 평가자 간 분류 일치도를 본 결과 카파계수가 .695($p < .001$)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피험자 응답에 대해서는 두 평가자가 합의를 걸쳐 분류하였다. 또, 행동에 대한 후회인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나 후회라고 판단되지 않는 응답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의 선택권이 없는 외부적 상황이나(‘시험에 붙었어야 했다’), 행동에 대한 후회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섞어서 후회의 상황을 묘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총 176개의 후회응답 중 16개로 후회 유형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자료를 가지고 후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역을 모두 포함시켰을 경우에 행동에 대한 후회가 60개(37.5%),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100개(62.5%) 보고되었다(이항검정 $p = .002$). 인생영역 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우선 교육의 영역에서 행동에 대한 후회가 13개(18.8%),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56개(81.2%)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이항검정 $p < .001$). 애정의 영역에서는 행동에 대한 후회가 15개(65.2%), 비행동에 대한 후회가 8개(34.8%)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많았다(이항검정 $p = .210$). 자기의 영역에서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15개)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6개)보다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이항검정 $p = .078$). 친구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에 대한 후회가 15개(71.4%)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6개, 28.6%)보다 더 많았지만 이는 유의미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이항검정 $p = .078$). 직무에 대한 후회에서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타났다(각 6개와 5개).

후회의 지속기간

피험자들이 보고한 후회사건의 발생 시기는 평균적으로 약 4년(44.97개월) 전이었으나 표준편차가 61.24로 매우 컸다. 후회의 지속기간을 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교육에 대한 후회가 51.16개월로 가장 오래 지속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에 대한 후회(53.36개월), 자기에 대한 후회(44.91개월), 직무에 대한 후회(36.31개월), 그리고 애

정에 대한 후회(23.31개월)의 순으로 지속기간이 점점 짧아졌다. 가족, 건강, 공동체, 여가 영역에 대한 후회를 보고한 경우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해석하는 것이 부적합하였고, 양육, 영성, 재정의 영역에서는 후회가 한 개도 보고되지 않았다.

문화성향의 개인차에 따른 후회

피험자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후회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열 명 미만) 영역들을 제외한 후 남은 상위 5개 영역(직무, 교육, 친구, 애정, 자기)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17명을 제외한 1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우선 해당 5개 영역 각각에서 피험자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점수들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그 평균점수에 따라 개인주의-집단주의 각 성향에 따른 영역순위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후회빈도에 따른 영역순위와 문화성향의 평균 점수 순위에 따른 영역순위 간의 순위상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적 성향의 하위 요인들 중 수직적 개인주의와 후회의 순위 간에서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rho = .900, P < .05$). 이는 특정 영역을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직적 개인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특정 후회를 선택한 사람들의 문화성향의 순위를 보면 흥미로운 몇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수직적인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교육을 가장 1순위로 후회하지만, 수평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애정을 가장 많이 후

표 2. 후회 상위 5개 영역의 순위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영역 순위 간 상관

순위	후회를 많이 응답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1	교육	교육	교육	애정	애정
2	애정	애정	애정	교육	교육
3	자기	자기	직무	친구	자기
4	친구	직무	자기	자기	직무
5	직무	친구	친구	직무	친구
		$\rho = .900^*$	$\rho = .700$	$\rho = .800$	$\rho = .800$

* $p < .05$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문화 내에서의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3개의 문화성향에서도 .70에서 .80에 이르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사례 5개에 대한 비모수적 상관분석이라는 한계에 귀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 2. 한국 대학생 집단의 기회지각

연구 2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기회가 많다고 지각하는 삶의 영역과 기회가 적다고 지각하는 삶의 영역을 물어보았다. 기회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인생영역의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난 후회영역 순위와 비교하여 지각된 기회와 후회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절차 및 도구는 Roese와 Summerville(2005)의 두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구성되었고, 여기에 개인의 문화적인 성향을 부가적으로 측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피험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81명이었다. 이 중 남자는 51명, 여자는 30명이었고, 평균나이는 23세(표준편차 2.3)이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기회가 많은 영역

피험자들에게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생영역 목록을 제시한 후 그 중에서 기회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였다. 지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신은 위 목록 중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에게 기회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가장 많거나 혹은 당신이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은 위의 목록 중 어떤 것입니까.

피험자들이 영역을 선택한 후에는 그 영역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들을 물어보았다. 우선 피험자들이 실제로 기회가 많다고 지각하는 영역을 선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영역의 수정가능성(“이 영역은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을 얼마나 지각하는지 물어보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영역에서 가장 후회되는 경험의 후회강도와 해당영역의 중요도(“이 영역은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를 묻는 질문도 포함시켰다. 각 하위 문항 모두 10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제작되었다.

기회가 적은 영역

기회의 가장 많은 영역과 가장 적은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한 피험자가 두 질문 모두에 응답하되, 문항제시의 순서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기회가 가장 많다고 지각되는 영역을 먼저 묻는 조건과 그 반대의 조건의 설문지를 절반씩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가장 적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선택하게 만든 후 그렇게 선택된 영역에 대한 수정가능성과 중요도를 10점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기회가 가장 적은 영역을 선택하라는 지시문은 아래와 같다:

당신은 위 목록 중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에게 기회가 가장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되거나 혹은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위의 목록 중 삶의 어떤 영역이 더 고정되어 있고 바꾸기 어려우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Singelis 외(1995)의 척도를 질문지 맨 앞에서 사용하여 개인의 수직적/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였다.

결 과

지각된 기회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결과, 피험자들은 기회가 가장 많다고 지각한 영역($M=5.31$)이 기회가 가장 적다고 지각한 영역($M=3.14$)보다 바꾸거나 수정하기 쉽다고 생각하였다($t_{(78)}=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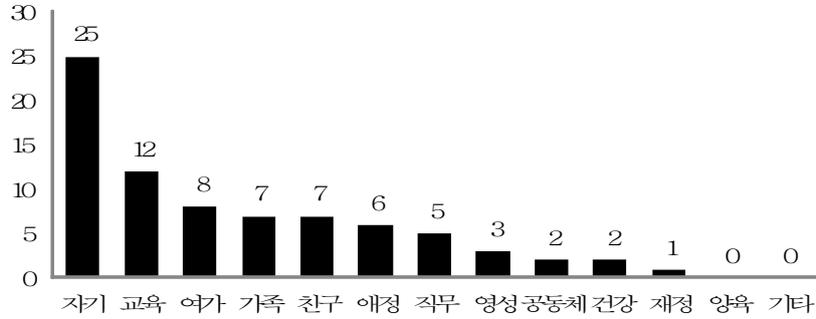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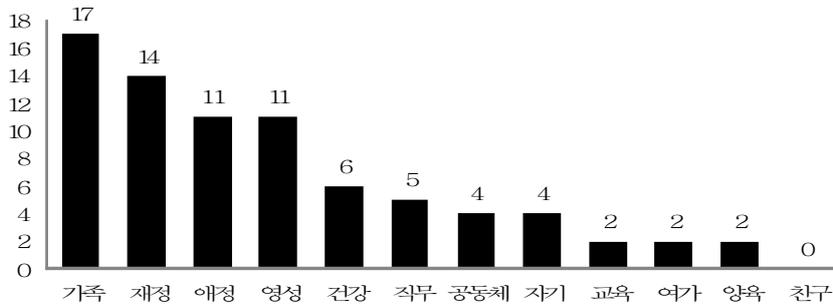


그림 2. 피험자가 기회가 가장 많다고 지각한 인생영역의 빈도분석 결과



$p=.001$). 피험자들이 기회가 가장 많다고 판단한 인생영역과 가장 적다고 판단한 인생영역은 그림 2와 그림 3에서 나타난 순서와 같다. 즉, 피험자들은 자기($N=25$), 교육($N=12$), 여가($N=8$), 가족($N=7$), 친구($N=7$), 등의 영역순서로 기회가 많다고 지각하였으며 가족($N=17$), 재정($N=14$), 애정($N=11$), 영성($N=11$), 등의 영역순서로 기회가 적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영역($M=8.0$)이 기회가 적다고 지각되는 영역($M=6.44$)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t_{(78)}=4.58, p=.001$).

피험자들이 기회가 가장 많다고 지각한 인생영역의 순위와 연구 1에서 피험자들의 후회가 가장 많이 속한 인생영역의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영역일수록 후회도 더 많이 일어났다, $\rho=.729, p=.007$ (표 3). 반면 기회

가 적다고 지각되는 영역의 순위와 후회하는 영역의 순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ho=-.232, p=.469$. 즉, 후회는 기회가 많다고 여겨지는 영역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와 놀라울 만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후회를 강하게 하는 영역과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영역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반면, $\rho=.65, p=.02$, 이러한 관계성은 기회가 적다고 지각되는 영역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rho=-.21, p=.51$. 가장 강하게 후회하는 영역과 기회가 가장 많다고 지각하는 영역간의 관계성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한국대학생 집단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은 기회가 후회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범문화적일 가능성을 제안한다. 특히 그 관계성의 정도가 미국인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 또한 이러

표 3. 피험자들의 후회 영역 순위와 피험자들이 기회가 가장 많다고 지각하는 영역순위 간 비교

연구 1			연구 2		
후회하는 영역		%	기회가 많은 영역		%
1	교육	40.9	1	자기	30.9
2	애정	13.1	2	교육	14.8
3	자기	13.1	3	여가	9.9
4	친구	12.5	4	가족	8.6
5	직무	7.4	5	친구	8.6
6	가족	3.4	6	애정	7.4
7	공동체	2.3	7	직무	6.2
8	건강	1.7	8	영성	3.7
9	여가	0.6	9	공동체	2.5
10	재정	0	10	건강	2.5
11	양육	0	11	재정	1.2
12	영성	0	12	양육	0

순위상관계수(ρ)=.729, p =.007

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생영역에 대한 기회지각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나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와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았다(그들이 제시한 결과자료에서는 상위 6개 영역의 정보만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상위 6개의 인생영역만을 사용하여 순위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두 피험자집단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인생영역에 대한 기회지각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표 4).

특정 인생영역의 기회에 대한 지각과 개인주의-집단주

표 4. 인생영역 기회의 지각에 대해서 본 연구 2와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를 비교

기회가 가장 많다고 지각					
본 연구 2			Roese와 Summerville		
인생영역		%	인생영역		%
1	자기	30.9	1	자기	28.7
2	교육	14.8	2	교육	14.9
3	여가	9.9	3	건강	12.8
4	가족	8.6	4	영성	10.6
5	친구	8.6	5	애정	7.4
6	애정	7.4	6	친구	7.4

순위상관계수(ρ)=.444, p =.148

표 5.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상위 5개 영역의 순위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영역 순위 간 상관

순위	기회를 많이 지각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1	자기	교육	가족	교육	가족
2	교육	가족	친구	친구	친구
3	여가	친구	여가	자기	여가
4	가족	자기	교육	여가	자기
5	친구	여가	자기	가족	교육
		ρ =-.121	ρ =-.970*	ρ =.364	ρ =-.849

* p <.05

의 성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1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순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응답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영역을 제외하고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순서대로 상위 5개의 영역 순위를 도출한 후, 우선 해당 5개 영역 각각에서 선택한 피험자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점수들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그 평균점수에 따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영역순위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기회빈도에 따른 순위와 문화성향의 순위에 따른 영역순위 간의 순위상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표 5).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회를 지각하는 영역의 순위가 수직적 집단주의와만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대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기회(자기통제력)가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과는 정반대의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교육을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높았고, 가족관계에 대해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개인의 문화성향 차이에 따라서 기회를 달리 지각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논 의

후회라는 감정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회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후회 연구에 있어서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도입한 시도가 최근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후회의 보편적인 속성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허

태균, 2001, 2002, 2004). 또한 한국 문화적 특성과 관련하여 진행된 후회에 대한 연구도 극소수였으며, 인생의 특정영역(교육)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졌다(허태균, 남궁재은, 張薇, 2008; Hur, Roese, & Namkoong, in press). 따라서 한국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왜 후회하는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사람들(미국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특히 한국대학생)의 후회경험에서의 경향성을 밝혀내고, 그것을 미국의 대비 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후회경험의 유사성과 고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대학생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인생영역은 교육, 애정, 자기, 친구, 직무, 가족, 공동체, 건강, 여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 대학생 집단의 후회가 교육의 영역에 심히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40% 이상을 차지). Roese와 Summerville(200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16.7%) 매우 대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같은 한국 사회의 교육열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이 가장 많이 후회되는 인생 영역이며, 동시에 기회도 많게 지각되는 영역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허태균과 남궁재은, 張薇(2008)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일관된다. 즉, 과거의 한국사회에서는 교육기회의 박탈에 의한 한이 더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현대사회에 교육에 대한 기회의 증가와 함께 그에 관한 후회가 예전보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교육성과가 사회적 성공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할 만 한 점은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이기에 가족이나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후회가 서구문화에 비해 많이 경험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연구 2에서의 가족과 친구의 영역이 기회의 지각수준에 있어서 중간정도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간접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즉, 한국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가 적게 경험된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회영역과 기회영역 간의 순위 상관관계수가 유의미했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후회는 자신

이 통제력이 있거나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한다(Roese & Summerville, 2005).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Roese와 Summerville (2005)의 미국 연구자료에서 건강은 기회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지각되고 있는 반면 한국자료에서 건강은 기회가 낮은 삶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는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인간의 건강이나 목숨과 관련된 영역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신 혹은 운명(팔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의 잔재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학생들이 재정과 영성에서 아무런 후회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와 달리 학생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스스로 경제적인 교육이나 인식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교를 선택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각 인생 영역에서 기회를 얼마나 지각하는지에 따라 후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에서 재확인하여 후회와 지각된 기회 혹은 통제 능력과의 관계가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임을 발견하였다. 즉, 개인의 힘으로 변화가능한 부분이 많은 인생영역일수록 사후가정사고의 전환성이 높은 선행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후회가 더 잘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로 인해 기회가 많다고 지각되는 삶의 영역이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후회가 일어나는 영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회경험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근본적인 기제가 같아도 특수한 후회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ur, Roese, & Namkoong, in press). 특히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포함시켰던 개인주의-집합주의 척도와 부분적이지만 기회 지각과 후회경험이 관련되어 있다는 발견은 문화적 성향에 따라 기회를 지각하는 유형이 다를 수 있고, 그 지각에 따른 후회의 경험상황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후회와 기회 간의 관계 및 그 안에서 순위를 살피는 작업은 후회가 유발되는 기제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후회의 경험과 기회의 지각이 고유한 현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며 다양한 방향으로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 기술한 후회에 대한 구조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전체적으로 일관되지만,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인생 전반이나 장기적 시간의 관점에서 자신의 후회를 회고할 때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언제나 많이 나타났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Che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기록된 모든 후회를 총합하면 한국대학생들도 행동하지 않은 것을 행동한 것보다 더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자료를 인생영역별로 나누어 추가적인 분석을 하면, 유독 관계적 영역(친구, 애정)에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문화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 이르지만, 기존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수준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후회의 주관식 응답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 틀을 구성한 후 실험적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현상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 한국인 전체에게 적용시키기 어렵다. 사후가정사고의 전환성에 기초한 후회와 기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일반화가 가능하겠지만, 후회라는 정서가 실질적인 경험의 누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연령이나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결과에서 양육이나 재정영역에서 후회가 전혀 보고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록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후회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가 하나의 초석을 마련한 셈이지만, 그만큼 이루어져야 할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후회의 구조에서 나타난 한국대학

생들의 고유한 반응이나, 후회와 문화성격적 특성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된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연구에서는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넘어서는 발견이었는데, 기존의 관련 연구가 전무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가설이 확실히 구성되지 않았기에 그 설명변인을 측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탐색적인 연구의 성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확장할만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허태균 (2001).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에서 조절적 동기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59-171.
- 허태균 (2002). 사후가정사고의 심리적 기능과 응용적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1-190.
- 허태균 (2004). 왜 복권은 바꾸려 하지 않는가?: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와 후회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201-215.
- 허태균, 남궁재은, 張薇 (2008). 한국의 교육광풍: 과연 한, 후회, 학습효과의 산물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s), 47-62.
- Chen, J., Chiu, C., Roesse, N. J., Tam, K., & Lau, I. Y. (2006). Culture and counterfactuals: On the importance of life domai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1), 75-84.
- Gilovich, T., & Medvec, V. H. (1994). The temporal pattern to the experience of regr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357-365.
- Gilovich, T., Wang, R. F., Regan, D., & Nishina, S. (2003). Regrets of action and inaction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1), 61-71.
- Giroto, V., Legrenzi, P., & Rizzo, A. (1991). Event controllability in counterfactual thinking. *Acta Psychologica*, 78, 11-133.
- Hur, T., Roesse, N. J., & Namkoong, J. E. (in press).

- Regrets in the East and West : The role of intra-personal versus interpersonal norm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Kahneman, D., & Tversky, A. (1982a). The simulation heuristic. In D. Kahneman, P. Slovic & A. Tversky (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 Heuristic and biases*(pp.201-20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hneman, D., & Tversky, A. (1982b). The psychology of preferences. *Scientific American*, 246, 160-173.
- Kahneman, D., & Miller, D. T. (1986). Norm Theory : Comparing reality to its alternatives. *Psychological Review*, 93(2), 136-153.
- Landman, J. (1987). Regret and elation following action and inaction : Affective responses to positive versus negative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4), 524-536.
- Markman, K. D., Gavanski, I., Sherman, S. J., & McMullen, M. N. (1993). The mental simulation of better and worse possible world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87-109.
- Roese, N. J. (1994). The functional basis of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05-818.
- Roese, N. J., & Hur, T. (1997). Affective determinants of counterfactual thinking. *Social Cognition*, 15, 333-350.
- Roese, N. J., & Olson, J. M. (1997). Counterfactual thinking : The intersection of affect and function.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9, pp.1-59). New York : Academic Press.
- Roese, N. J., & Summerville, A. (2005). What we regret most... and w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9), 1273-1285.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Zeelenberg, M. M., Van den Bos, K. K., Van Dijk, E. E., & Pieters, R. R. (2002). The inaction effect in the psychology of regr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3), 314-327.

What Korean College Students Regret Most? : The Role of Opportunity in Counterfactual Thinking

Jae-Eun Namkoong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Counterfactual thinking is the cognitive mechanism of regret which includes the process of mutation a factual event into a once-possible-but-unrealized alternative. Roese and Summerville (2005) suggested that opportunity is a key determinant of regret and that the strongest regret would take place in life domains with the highest perceived opportunity.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role of perceived opportunity in regret among Korean samples. The research procedure was basically adopted from Roese and Summerville (2005), with an additional measur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as cultural orientation. Study 1 investigated which life domain was most regretted. Study 2 asked participants to choose life domains in which they have(had) the most/least opportunities. The rank order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ignificant between regret and opportunity, consistent with the Western previous findings. Moreover,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showed similar patterns in regret over similar life domains. Cultural orientations were partially related with experience of regret and perceived opportunity. Interestingly, frequency patterns of action vs. inaction regret varied across life domain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ir implication of the universal principles and cultural uniqueness of regret experience.

Keywords: Counterfactual thinking; Regret; Opportunity; Korean college students; Cultural orient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9월 12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2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26일